

국어 영역

문제는 총 20문항입니다.

☞ 화법과 작문 (6) + 문법 (3)
+ 독서 (5) + 문학 (6)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오늘의 논제는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자.’입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국제 유가와 전력 부족으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광 절약 시간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찬성 1: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의 상승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는 낮의 길이가 긴 여름철에 표준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선전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면 일몰 시각이 한 시간 늦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과 중의 조명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늘한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냉방용 전력 수요도 감소할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 보았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에너지 절약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들어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반대 1: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조명 시설보다 더 큰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어차피 냉방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전력 사용의 감소 효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광 절약 시간제가 오히려 자동차 연료의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낮 시간이 늘어난다면 퇴근 후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한다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한 일광 절약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추가적으로 수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제적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일광 절약 시간제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1. 위 토론의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다른 토론자의 말을 요약하여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실제 사례를 이용해 문제 상황을 부각하여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자신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토론자의 말을 언급하고 있다.

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상황이 정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여 국민의 협조가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이 반론을 하도록 유도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여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 ④ 개인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자신의 주장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제 유가 상승과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다.
- ② 사람들의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 ③ 조명 수요를 줄일 수는 있지만 냉방 수요를 감소하는 효과는 없다.
- ④ 원유 수요를 늘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 ⑤ 사람들의 하루 활동 시간을 줄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제도이다.

[4~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교지 기사 작성 계획

많은 친구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모르는 것 같아.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글쓰기에 대한 글을 써야 되겠어.

▷ 글의 개요

- 1문단: 과거의 글쓰기 모습
- 2문단: 변화하는 글쓰기 모습 ㉠
- 3문단: 현재의 글쓰기 양상 ㉡
- 4문단: 인터넷 글쓰기의 장단점 ㉢
- 5문단: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 ㉣
- 6문단: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터넷 글쓰기..... ㉤

▷ 초고

[A]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편지는 편지지에 쓰고, 신문이나 잡지를 읽다가 보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지면을 오리거나 복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읽게 하려면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인쇄 매체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작가’들의 몫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디지털 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쓰기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문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소리가 결합한 복합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매체의 휴대가 간편해지면서 언제 어디서든 정보나 생각을 문자 언어로 표현하여 전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곧바로 자신만의 공간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이 읽은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손쉽게 전달하거나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 우편, 홈페이지나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의해 쓰기 환경이 변하면서 자신의 개성과 생각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B] 이제는 누구나 개인의 일상이나 관심사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기록하여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 가운데 특히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것은 사람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문화적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쉽게 정보에 다가갈 수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을 표절(剽竊)하거나 도용(盜用)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그리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왜곡하여 글을 쓰거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글로 써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의 글쓰기는 글을 통해 정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적절한 내용도 무차별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도 같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인터넷에 올린 글은 어떤 사람들이 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 파악하기 어렵다.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그것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에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이 전하는 정보가 타당하고 믿을 만하며 공정한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을 인용할 ㉣때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著作權)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에는 시각 자료나 음성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가 요구되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료를 인용하거나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악의적인 댓글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4. ‘작문 계획’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5. [A], [B]를 통해 학생의 작문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정보 전달의 주체를 ‘작가’로 한정하여 사람들의 소극적인 소통을 보여준다.
- ② [A]에서는 [B]와 달리 소통하는 모습을 정보 전달의 의의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 ③ [B]에서는 [A]와 달리 여러 가지 매체를 소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 ④ [A], [B] 모두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소개하여 시대별로 소통하는 모습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⑤ [A], [B] 모두 당시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6.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문장의 주어로 ‘책을 출판하는 것은’을 추가한다.
- ② ㉡: 과거 시제인 ‘되었다’를 현재 시제인 ‘된다’로 수정한다.
- ③ ㉢: 피동 접미사를 추가하여 ‘놓여질’으로 수정한다.
- ④ ㉣: 의미에 맞지 않는 보조사 ‘는’을 삭제한다.
- ⑤ ㉤: 주어와 호응관계를 이루지 않은 서술어 ‘한다’를 ‘하기 때문이다’로 수정한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장은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단위이다. 문장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등과 같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문장 성분(文章成分)이라고 한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을 제대로 갖추어서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품에 손을 대거나 파손하는 행위 금지”라는 문장은 ‘파손하다’라는 서술어의 대상인 ‘내리다’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처럼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을 생략하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다.

문장을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도 중요하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란, 문장의 기본 구조 안에서 문장 성분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호응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예컨대 “이번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코 상대방을 먼저 파악해야 했어요.”라는 말을 살펴보면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든다. 첫 번째 문장은 ㉠주어와 연결되는 서술어가 제대로 호응되지 않았다. 이 문장이 바른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로 고쳐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은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특정한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할 때가 있는데, ‘결코’라는 부사어는 뒤에 부정 표현의 서술어와 호응해야 적절한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그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먼저 파악해야 했어요.’로 고쳐야 바른 표현이 된다.

7.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을 먹자.
- ㉡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러웠다.
- ㉢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
- ㉣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 ㉤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낡은 장소로 이동되었다는 점이다.

	㉠	㉡
①	a, c, e	b, d
②	b, c	c
③	a	b, d
④	a, b	c, d
⑤	a, c	b, d

8.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활동] 다음 글을 제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해보자.

한 사회의 문화를 다른 사회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이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회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하지만 문화의 상대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가끔은 문화의 절대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다른 사회에 대한 편견은 사라질 것이다.

[평가 기준]

- 필요한 문장 성분을 제대로 갖추었는가?
- 의미가 중복된 부분이 있는가?
- 문장 성분의 호응은 적절했는가?
- 문장이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는가?
-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 ① 마지막 문장의 ‘바라볼’의 목적어가 빠져 있군.
- ② 의미가 중복된 부분은 보이지 않군.
- ③ 두 번째 문장에서 ‘왜냐하면’과 ‘것이다’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군.
- ④ 다섯 번째 문장은 글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문장이군.
- ⑤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은 보이지 않군.

9. <보기>의 ㉠~㉤에 대한 예시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할 때 규칙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크게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① ㉠: 나는 승강기에 탄 뒤 8층 버튼을 눌렀다.
- ② ㉠: 가을이 되자 단풍나무 잎사귀들은 붉어지고, 은행나무 잎사귀들은 누르렀다.
- ③ ㉡: 그는 김밥을 싸기 위해 밥을 쫘다.
- ④ ㉡: 일을 하느라 피곤해진 나는 바닥에 드러누웠다.
- ⑤ ㉢: 겨울에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얘진다.

가젤은 시속 80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다. 이것도 빠른 속도임에는 틀림없지만, 달리는 속도만으로 보면 시속 120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는 치타를 피해 가젤이 살아남기는 힘들다. 가젤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변의 경계하여 치타의 접근을 미리 알아채는 것이다. 초원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바람에 날리는 풀인지 치타인지 식별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가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물체를 탐지하여 식별하는 **시각의 속도**는 생존을 결정하기도 한다. 가젤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에게 시각은 중요한 기능이다.

시각의 속도는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 어린아이의 시각 속도를 재기 위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사용한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화면에 네 개의 사각형을 보여준다.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의 사각형을 각각 1, 2, 3, 4번이라고 정하자. 각 사각형의 색은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또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바뀌는데, 네 개의 사각형 가운데 세 개는 같은 순간에 동일한 색으로 함께 바뀌고, 나머지 하나는 세 개와 다른 색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1, 2, 4번의 사각형 세 개가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뀔 때 3번 사각형은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뀐다. 연이어 다음 순간 1, 2, 4번의 사각형이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뀔 때 3번 사각형은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뀐다. 이런 그림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색이 다른 사각형의 번호를 맞게 하는 것이다.

색이 바뀌는 빈도를 높여 가면 과제는 점점 어려워진다. 1초 동안 신호가 바뀌는 횟수를 헤르츠(Hz)로 표시하면, 성인들은 평균 10헤르츠까지 알아맞힌다. 15개월 된 아기는 1헤르츠 정도까지 알아맞힌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는 15개월 된 아기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기들은 흥미로운 물체를 보면 그쪽으로 시선을 이동하는데, 네 개의 물체가 깜빡이면서 세 개는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나머지 한 개는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 시선을 이동하게 된다. 아기들의 눈을 잘 관찰하고 있으면 무엇이 표적으로 선택되는지를 알 수 있다. 15개월 된 아기들의 시각의 속도는 성인의 10분의 1정도이지만 6세인 어린이는 이미 시각의 속도가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눈앞에 놓인 물체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일까? 물체를 보는 과정에는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필 표면에서 **①반사된 빛**이 눈의 **②각막과 수정체**를 거쳐 굴절되면서 눈 안의 뒤쪽에 있는 망막 표면에 연필 영상으로 맺힌다. **③망막**은 신경 세포들이 층층이 모여서 영상을 기록하기 좋은 구조를 하고 있다. 망막 세포는 망막에 도달한 빛을 흡수하면서 전기 신호를 만든다. 마치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영상이 전자 소자(電子素子)들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기록되는 것과 비슷하다. 영상의 조그만 부분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전기 신호를 망막의 세포 하나하나가 뇌로 전달한다. **④시신경(視神經)**은 세포 하나하나가 사용하는 **⑤신경 섬유(神經纖維)**가 모여서 다발을 이룬 것이다. 한쪽 눈의 시신경에는 백만 개 이상의 신경 섬유가 있어서 많은 수의 세포들이 많은 양의 신호를 동시에 **⑥뇌**로 전달하고 있다. 눈이 전달하는

신호를 뇌가 해석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뇌는 어떻게 이 신호들을 처리하여 연필을 인식하고 치타를 인식하는 것일까? 뇌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세포 활동을 직접 탐지하기도 한다. 빠르게 깜빡이는 사각형을 보고 있을 때, 망막과 망막의 신호를 전달받는 뇌세포들의 활동은 깜빡임에 따라 변한다. 짧은 순간 물체를 보고 물체의 정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뇌세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물체를 식별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물체를 식별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이것은 바로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두뇌는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미지의 세계이다. 시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진다면 이 신비를 풀 수 있을 것이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젤과 치타의 예시를 이용하여 시각이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성인과 15개월 된 아기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시각의 속도는 성장하면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뇌가 물체를 인식하기까지의 과정을 빛의 이동 경로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 ④ 시신경의 기능을 디지털카메라의 전자 소자(電子素子)와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⑤ 사람이 물체를 보는 과정을 소개하여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혀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 물체를 인식하는 데에는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는 ㉣를 거쳐 ㉤에 맺힌다.
- ㉢ ㉣의 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각각 ㉥로 전달한다.
- ㉣ ㉣는 ㉣를 사용하여 ㉢를 기록한다.
- ㉤ 전기 신호는 ㉢와 ㉣를 거쳐 ㉥에 전달된다.

12. 빛의 **시각의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체를 탐지하여 식별하는 속도를 이르는 말이다.
- ② 초원에서 가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중 하나이다.
- ③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중요한 능력이다.
- ④ 짧은 순간 물체를 보고 물체의 정체를 판단하기 위한 속도이다.
- ⑤ 빛이 광원으로부터 방출되어 물체에 반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13. 빛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물체를 식별하는 시각의 속도는 어떻게 켤 수 있을까? 시각의 속도를 재는 간단한 방법 한 가지는 집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주다가 동물 사진 하나를 섞어 보여 주면서 동물을 보았는지, 보았다면 어떤 동물인지를 맞게 하는 것이다. 물론 사진을 1초에 한 장씩 천천히 바꾸어 보여 주면 쉽게 맞힐 수 있다. 하지만 사진을 짧은 시간 동안만 보여 주면서 빨리 바꾸게 되면 과제는 점점 어렵게 된다.

- ① <보기>의 실험은 빛의 실험과 달리 색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각의 속도를 측정하는군.
- ② <보기>의 실험에서 성인들이 평균 10헤르츠까지 알아맞혔다고 가정하면, 6세 어린이는 약 1헤르츠까지 알아맞힐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군.
- ③ 빛의 실험과 달리 <보기>의 실험으로는 아기들의 시각의 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겠군.
- ④ 빛의 실험과 <보기>의 실험은 모두 시각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실험이겠군.
- ⑤ 빛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실험에서 사진이 바뀌는 빈도 값이 증가함에 따라 아기와 성인의 시각의 속도 차이가 커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군.

14. 문맥상 ㉠에 들어갈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첩해진다 ② 날렵해진다 ③ 가속된다
- ④ 기민해진다 ⑤ 빨라진다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문학은 한국인 작가가 한국인의 생활 경험과 정서를 한국어로 창작한 문학을 말하며, 음성 언어로 창작된 구비 문학과 문자 언어(한자, 한글)로 창작된 기록 문학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 문학은 발생 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문학 작품을 통해 계승되어 온 공통된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고 한다. 한국 문학의 전통은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연스럽게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한국 문학의 전통은 형식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학의 형식적 측면에서 본 한국 문학의 전통은 우선 향가(鄕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로 형식적 발전을 이루었는데, 제망매가(祭亡妹歌)와 같은 10구체 향가에서는 전단(前段), 후단(後段), 낙구(落句) 시상(詩想) 전개 방식이 나타난다. 특히 낙구(落句)의 형식은 이후의 시조 작품과 가사 작품에 계승되어 나타난다.

문학의 내용적 측면에서 본 한국 문학의 전통은 우선 이별과 관련된 소재의 정서를 꼽을 수 있다. 한국 문학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생활 경험인 이별을 소재로 다루면서, 이별로 비롯된 정서를 다양한 갈래의 문학 작품에서 그려 왔다.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 고려 가요 ‘가시리’와 ‘서경별곡(西京別曲)’, 정지상의 한시 ‘송인(送人)’,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이상향을 염원하거나 추구하는 내용도 한국 문학의 전통으로 꼽을 수 있다. 고려 가요 ‘청산별곡’이나 조선 시대 소설 ‘홍길동전’ 등에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상 세계에 대한 소망을 그려 내고 있다.

자연 친화나 자연과의 일체감 추구도 한국 문학의 내용적 전통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 문학에서는 자연을 인간이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그리거나,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이 지니는 긍정적 가치를 노래한 작품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 송순의 ‘면앙정가(倅仰亭歌)’ 등의 가사 작품과 이현보, 이항, 윤선도 등의 시조 작품에도 이러한 전통이 잘 드러난다.

(가)

生死路(생사로)는
예 이샤매 저히고
나는 가느다 말스도
묻 다 님고 가느릿고
어느 ㅁ술 이른 ㅁㅅ매
이에 저에 떠딜 님다이
흐든 가재 나고
가는 곧 모든더
아으 彌陀刹(미타찰)에 맞보올 내
도(도) 닻가 기드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나)

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르는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거나,
別淚年年添綠波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을 더하는 것을.

- 정지상, 「송인(送人)」 -

(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떨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렁공 더렁공 흥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쁘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흥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

(라)

강호(江湖)에 병(病)이 깊퍼 독림(竹林)의 누엇더니,
관동(關東) 팔백(八百) 리(里)에 방면(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극(罔極)하다.
연츰문(延秋門) 드리드라 경회(慶會) 남문(南門) 바라보며,
하직(下直)고 물너나니 옥절(玉節)이 알찌 섰다.
평구역(平丘驛) 물을 마라 흑수(黑水)로 도라드니,

섬강(蟾江)은 어디메오 티악(雉岳)이 여기로다.
쇼양강(昭陽江)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 할샤.
동쥬(東州) 밤 게오 새와 북관당(北寬亭)의 올라하니,
삼각산(三角山) 제일봉(第一峰)이 흥마면 뵈리로다.
궁왕(弓王) 대궐(大闕) 터희 오작(烏鵲)이 지지괴니,
천고(千古) 흥망(興亡)을 아난다 몰으는다.
회양(淮陽) 네 일홈이 마초아 맞들시고.
급당유(汲長孺) 풍채(風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영중(榮中)이 무스(無事)하고 시절(時節)이 삼월(三月)인 제,
화천(花川) 시내길히 풍악(楓岳)으로 버더 잇다.
행장(行裝)을 다 찢티고 석경(石逕)의 막대 디퍼,
백천동(百川洞) 거터 두고 만폭동(萬瀑洞) 드러가니,
은(銀) 맞튼 무지개 옥(玉) 맞튼 룡(龍)의 초리,
섯돌며 쏜는 소리 십(十) 리(里)의 즈자시니,
뜰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금강덕(金剛臺) 뉘 우층(層)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의 첫줄을 썩듯던디,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쓰니,
서호(西湖) 뉘 주인(主人)을 반겨서 넘노는 듯.
쇼향노(小香爐) 대향노(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正陽寺) 진혈덕(眞歇臺) 고터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 진면목(眞面目)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췌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잡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츠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놉홀시고 망고덕(望高臺) 외로울샤 혈망봉(穴望峰)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맞디니 쏘 잇는가.
기심덕(開心臺) 고터 올라 등향성(衆香城) 바라보며,
만(萬) 이천봉(二千峰)을 녀녀(歷歷)히 혀여하니,
봉(峰)마다 밋쳐 잇고 굻마다 서런 괴운,
몹거든 조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人傑)을 문들고자.
형용(形容)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턴디(天地) 삼기실 제 자연(自然)히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有情)홀샤.
비로봉(毗盧峰)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냐 놉듯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턴하(天下) 엇지흥야 적담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흥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흥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圓通)골 마는 길로 스즈봉(獅子峰)을 츠차가니,
그 알찌 너러바회 화룡(化龍)되 되어세라.
천년(千年) 노룡(老龍)이 구빅구빅 서려 이서,
듀야(晝夜)의 흘녀 내여 창희(滄海)에 니어시니,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

15. 윗글을 바탕으로 (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후단(後段)의 첫 낱말에 감탄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였다.
- ② 3음보 율격을 사용하여 시를 읽을 때 리듬감을 느껴지게 하였다.
- ③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배치하여 경외감을 드러낸다.
- ④ 시적 화자는 전단(前段)에서 발생한 내적 갈등을 낙구(落句)에서 해소하고 있다.
- ⑤ 선경후정(先景後情)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6.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도치법이 사용되어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였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자연의 모습을 화자의 모습과 동일시하여 이별의 슬픔을 심화시켰다.
- ④ (가)의 '彌陀刹(미타찰)'은 (나)의 '대동강 물'과 다른 의미를 가진 시어이다.
- ⑤ (가)의 '이른 브름'과 (나)의 '임 보내며'는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17.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다)에 사용된 시어들의 의미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청산별곡(靑山別曲)은 고려가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작품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작자의 계층이나 제작 동기, 작품의 성격, 작중 화자 등에 있어서 이렇다 할 정설이 세워지지 않은 채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작중 화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 중에서는 시적 화자가 유랑민이라는 설이 있다. 이 견해는 청산별곡이 정착지 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서러움을 담은 작품이라고 해석한다.

- ① '멀위와 드래'는 농민들이 '청산'에서 먹는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겠군.
- ② '잉 무든 장글란'은 농민들이 사용하던 이끼 묻은 쟁기를 의미하겠군.
- ③ '밤'은 농민들이 이상향에 온 후 느끼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의미하겠군.
- ④ '돌'은 농민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비애를 의미하겠군.
- ⑤ '설진 강수'는 농민들이 시련에서 잠시 벗어나 낙천적 체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군.

18. 윗글을 바탕으로 (라)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금이 '독림(竹林)'에 은거하고 있는 화자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② 화자는 '삼각산(三角山) 제일봉(第一峰)'에 올라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③ 만폭동 폭포의 무지개를 '룡(龍)의 초리'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동향성(衆香城)'에 올라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 ⑤ '비로봉(毗盧峰) 상상두(上上頭)'에서 금강산의 높이를 '동산(東山)', '태산(泰山)'과 비교하고 있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라)에 대해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 ✓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쓴 정철의 다른 작품인 사미인곡(思美人曲)을 읽고 두 작품을 비교해보자.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흐나 점어 잇고 님 흐나 날 피시니
 이 므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늣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는고
 옛그제 님을 뵈서 광한전(廣寒殿)의 울났더니
 그 더디 엇디흐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울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三年)일쇠
 연지분 잇니마는 놀 위흐야 고이 홀고
 므음의 므친 실음 첩첩(疊疊)이 빠혀 이서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싱은 유한헛디 시름도 그지업다

- ①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사미인곡(思美人曲)」 모두 연군지정(戀君之情)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군.
- ② 「관동별곡(關東別曲)」은 「사미인곡(思美人曲)」과 다르게 가사의 내용에 도교적인 사상이 나타나는군.
- ③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사미인곡(思美人曲)」의 시적 화자는 동일하군.
- ④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사미인곡(思美人曲)」 모두 내용 전개에 실제 지명이 사용되었군.
- ⑤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사미인곡(思美人曲)」 모두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었군.

20. 문맥상 ㉠과 의미가 유사한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연지기(浩然之氣) ② 백중지세(伯仲之勢)
- ③ 고립무원(孤立無援) ④ 의기양양(意氣揚揚)
- ⑤ 호구지책(糊口之策)